

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 '번개의 질주'..100m까지 딱 41발자국

송고시간 | 2008-08-17 1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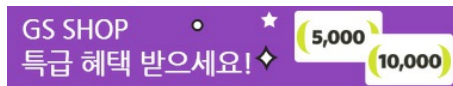


장현구 기자
[기자 페이지](#)

〈올림픽〉 '번개의 질주'..100m까지 딱 41발자국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썬더볼트'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가 16일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9초69를 찍어 세계기록, 올림픽기록 등을 몽땅 갈아치우는데 필요한 발자국은 딱 41개였다.

사상 처음으로 100m에서 9초6대 시대를 개척한 볼트를 분석하는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첨단과학은 물론 바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것처럼 빠른 기록을 낸 것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지난 5월 9초76을 찍은 뒤 한 달도 안돼 9초72로 세계기록을 새로 쓰더니 77일 만에 다시 0.03초를 줄여 9초69를 뒀다. '괴물'을 그러나 과학적으로 분석한 글은 별로 없다. 제대로 평가를 내리기도 전에 워낙 빨리 진화를 거듭하는 탓이다.

일단 그의 독특한 주법에서 괴력의 근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자이퉁'은 17일 인터넷 판에서 볼트가 스타트 블럭을 출발한 지 딱 41번째 스트라이드 만에 결승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한 발자국 당 평균 2.43m씩 뛸 셈이다.

스타트 후 가속력이 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폭발적인 스퍼트를 할 때는 스트라이드 거리가 2.43m 이상 더 벌어진다 계산이다.

최정상급 기량을 갖춘 이들이 45-46스트라이드만에 결승선에 골인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덜 뛰었다.

키 196cm 장신인 볼트는 100m 단거리 선수로는 너무 크다는 편견을 깬그리 깨뜨리고 학처럼 긴 다리를 이용해 보폭을 최대한 넓혀 남들보다 덜 뛰면서도 가속력을 살린 주법으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됐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스프린터 출신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100m에서 은메달을 딴 아토 볼든은 볼트의 주법을 보고 "그가 9초6대를 뛸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예견했고 결국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역대 육상 선수 중 독특한 주법으로 팬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힌 이는 마이클 존슨(미국)이다.

200m와 400m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뽐냈던 그는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보폭을 짧게 끊는 '스타카토 주법'으로 1990년대 중반 세계를 평정했다.

그가 1996년 200m에서 작성한 19초32는 아직도 세계기록으로 남아 있다. 200m가 주종목인 볼트는 19초67까지 기록을 줄여 존슨의 기록에 0.35차로 다가섰다.

볼트가 존슨의 기록마저 넘어선다면 그간 정립된 단거리 선수의 체격과 주법 등에 대한 학설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84년 칼 루이스(미국) 이후 24년 만에, 역대 스프린터 사상 9번째로 100m-200m 2관왕에 도전하는 볼트는 "더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불'을 이루고 싶을 뿐 존슨의 세계기록을 경신하는데 집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세계신기록의 원동력을 볼트만의 여유에서 찾기도 했다.

통신은 볼트가 전날 잠을 푹 잤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TV를 여유 있게 시청한 뒤 점심에는 치킨너겟을 먹은 뒤 또 낮잠을 잤다고 전했다. 저녁에는 다시 치킨너겟을 좀 더 보충해준 뒤 휴식을 취하고 트랙에 섰다고 소개했다.

뛰어난 기량에 낙천적인 성격까지 더해져 볼트의 신기록 행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cany9900@yna.co.kr

🔗 관련기사

- 올림픽<육상>볼트, 남자 100m 세계新으로 우승(종합)
- <올림픽> 무너진 단거리..미국, 시작부터 충격패
- 세계신 금메달 장미란, 사청률도 1위
- <올림픽> 인간탄환 볼트 "3관왕에 도전한다"
- <올림픽> 9초6 시대..인간 한계 어디까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7 14:53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렁열렁...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01:59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6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8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열?
41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